

가족 기능성과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 경기남부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최 규 련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The Relations between the Family Function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 Focused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gi South Area -

Choi, Kyu Reon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The University of Suwon, Hwasung,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of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ern Gyeonggi provi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60 high school students. The scale of family functioning was measured using the 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 Scale(FACES III) developed by Olson, et al.(1985). To measure the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Ahn's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Scale(IRDS) was used.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t-test, ANOVA, and multiple comparison(Duncan test).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udent's family function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according to school department and family economy level.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according to gender. Where family functioning was higher, the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were more sympathetic, accepting and socially friendly, while being less rebellious and distrustful.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found that family functioning has effects on high school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Key words: family adaptability, family cohesion,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부모와의 최초의 상호작용을 시작하므로 가족관계는 자녀의

인격형성과 가치관 정립은 물론 대인관계 기술과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인관계에서 가족의 중요성은 Sullivan과 Leary로 대표되는 신프로이트학파에 의하여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이는 대상관계이론으로 발전되었다. 대상관계이

접수일: 2004년 5월 14일 채택일: 2004년 6월 4일

Corresponding Author: Choi, Kyu Reon Tel: 82-31-220-2242

Fax: 82-31-220-2189 E-mail: krchoi@suwon.ac.kr

론에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행하는 행동양식은 가족 내에서 형성된 대인관계의 연장이거나 반동 혹은 보상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개인이 지각한 가족관계를 강조하였다(송정아·최규련 2002). 그러므로 개인의 대인관계 성향은 사회화과정에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 결과가 내재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과 적응을 위하여 건전한 가족관계와 잘 기능하는 가족은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지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발달과 적응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연령상으로는 12세부터 22세 사이에 해당되며 16세에서 18세에 이르는 고등학생은 청소년기를 대표하는 시기에 해당된다.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고등학교 시기가 중시되는 것은 이 시기동안에 획득되어지고 형성된 사회적응양식이 청년후기를 통하여 안정되고 이후 성인기의 적응양식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방문희 1991; 주소영 1995; Leary 1957).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가족의 기능보다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애정적 유대, 애착과 같은 부모와 자녀간의 양자(兩者)관계에 초점을 두었다(방문희 1991; 송여옥 2002; 심혜영 1992; 주소영 1995; 한광희 1986; 황경옥 2002). 그 결과 부모의 영향에 대해서만 고찰하였고, 청소년이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가족체계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도 가족의 일원임을 고려하여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모든 가족관계를 함축하는 개념으로 가족의 기능성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의 기능성은 가족기능이 약화되어 가족문제와 가족해체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에 이르러 주목받게 되었다. 가족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가족체계이론에 근거한 Olson 등의 순환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나 곡선적 가설과 직선적 가설로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못하고 우리 문화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더욱이 가족의 기능성이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과 어떻게 관련되는 지에 대한 연구가 부진하여 현재까지 아동이나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나(신귀순 2001; 이문행 1994) 중고등학생의 대인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 연구만 있을 뿐이다(최희량 1998).

이에 본 연구는 체계론적 접근을 적용하여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의 기능성과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문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기능성이 인구학적 변인(성별, 학교계열별, 가정경제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성향이 인구학적 변인(성별, 학교계열별, 가정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가족 기능성과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성향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가족 기능성

가족의 기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접근으로 건강한 가족(healthy family), 기능적인 가족(optimally functioning family), 실현적 가족(actualizing family) 같이 특징적인 요인들을 나열하는 모형과, 연속적 모델(continuum model)이나 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을 사용하는 모형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모형은 바람직한 여러 요인들을 포괄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각각 요인이 가족기능성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와 비중 정도를 측정할 수 없고 점수화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자의 모형은 가족기능의 핵심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축(연속적 모델)이나 두 축(순환모델)으로 가족의 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장점이 있어서 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으나 척도의 타당도와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가설적 모델이라는 특성이 있다.

연속적 모델은 Beavers(1977)에 의하여 개발된 것으로 가족의 여러 기능의 효율성(effectiveness) 정도에 따라 연속선상에서 최상의 가족, 적절한

가족, 중간가족, 경계선 가족, 심한 장애가족으로 배열한다. 순환모델은 연속적 모델을 좀더 개선시켜서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가족의 기능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가족을 유형화하는 이론이므로 임상과 연구에서 다른 모형보다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최규련 1988).

순환모델은 Olson 등(1979; 1980; 1983)이 일반체계이론을 기초로 개발한 것이다. 이 모델은 체계요소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체제의 전체성을 이루고 안정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여 가족과정(family process)에 초점을 두며, 가족체계 내에서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지원과 정서적 유대를 나타내는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과 가족이 가족 내·외부의 긴장에 대응하여 가족체계를 적절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가족적응력(family adaptability)의 두 가지 축을 제시한다.

Olson과 Defrain(2003)은 가족의 기능성이 높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의 각기 독특한 속성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면서, 가족구성원이 상호의존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가족 내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정서적 유대감, 역할, 규칙, 위계질서 등의 구조 속에서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져서 가족체계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가 친밀한 동시에 개인적인 자주성이 존중되고 개성과 독립성을 인정해 주며, 가족 구성원들이 성장과 발달, 노쇠와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에 적응 할 줄 알며 문제나 갈등을 잘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Olson et al. 1979).

본 연구에서는 Olson 등의 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국내외의 여러 임상과 연구에서 가족의 기능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연구가 많지 않고 한국문화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족 기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관련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환모델은 기본적으로 중간정도의 응집성과 적응력을 지닌 가족(균형가족)이 기능적인 가족이고,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거나 낮은 가족(극단적 가족)은 역기능적이라는 곡선가설을 갖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즉 국내외의 연구에서 임상 가족이 아닌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응집성 및 적응력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기능이 효과적이라는 직선 가설이 대부분 입증되고 있으나(김수연 1997; 전귀연·최보가 1995a,b; 최규련 1998, 1999; Lavee·Olson 1991) 불일치한 결과들도 보고되는데 그 원인으로 표집대상의 차이, 유형구분, 척도 등의 방법론문제가 지적되었다(김수연 1997; 최연실 1996).

Lavee와 Olson(1991)은 순환모델의 곡선적 가설을 지지하는 데는 두 가지 예외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가족체계에 관한 문화적, 윤리적 규범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일반가족이나 비임상가족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실제로 극단에 속하는 가족이 매우 제한되므로 가족기능과 가족응집성·적응력 각각의 관계가 곡선적이기 보다는 직선적이라는 것이다. 즉 가족 내 규범적 기대가 '가족이 함께하는 것'을 강조하는지 아니면 '가족원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강조하는지의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고, 가족의 문제발생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이익, 화목과 결속을 중시하고 가장의 권위와 가족규칙이 엄격한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고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직선가설의 입장을 적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가정경제 수준으로서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가족의 기능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이 모두 관련된다는 결과(안양희 1988; 최희진·유영주 2004)와 가족응집성만이 관련된다는 결과(이문행 1994)로 차이를 보이고, 또한 연구대상이 동일하지 않아 중고생과 대학생 집단으로 상이하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학력은 가족 기능성과 관련이 거의 없다는 보고가 대부분이다(이문행 1994; 전귀연·최보가 1995a, 1995b; 최규련 1998, 1999 등).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가 미흡하거나 일관성있는 연구 결과를 볼 수 없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면서 가족 기능성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변인으로 가정경제수준과 성별을 포함하였다.

2. 대인관계 성향

대인관계 성향(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은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으로 정의된다. Heider(1964)는 두 사람에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고 반응하며, 어떻게 타인을 지각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가,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 양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개념은 인간관계(human relation)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학술적으로는 구별된다. 인간관계 개념은 사회학적 접근으로서 집단이나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달성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인관계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심리학적 접근의 성격을 지니며, 개인이 지니는 여러 성격특성들의 상호작용 결과로 이해된다(안범희 1985).

대인관계 성향 개념은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개인의 성격형성과 행동을 설명하는 신프로이트 학파 학자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Sullivan(1953)은 대인관계의 기본목적은 만족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어머니와의 접촉형태가 개인의 대인관계 성향을 결정짓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직축으로서 지배-복종과, 수평축으로서 중요-사랑의 대인관계 행동차원을 제시하였다.

Leary(1957)는 인간에 관한 관점에 있어 개인의 본질을 강조하던 것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의 개인”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인관계 차원을 분화 발전시켰다. 그는 Sullivan의 이론을 발전시켜 대인관계를 진단하는 다차원 축을 개발하여 8차원의 모형을 제시하였고 이후 8차원 각각에서 극단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행동 8가지(지배-독재, 책임감-초정상적, 협동적-인습적, 유순-의존적, 자기발달-피학적, 반항적-불신적, 공격적-가학적, 경쟁적-자기도취적)을 추가하여 16개의 대인행동 모형을 제시하였다.

Krech 등(1962)은 대인관계 성향을 역할성향(role disposition), 사회관계성향(sociometric disposition), 표현적 성향(expressive disposition)으로 대별하고 기본적 대인반응 특성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하위영역으로 역할성향에는 주도권-사회적 소심, 지배-복종, 솔선수범-수동성, 독립성-의존성 등의 영역, 사회관계성향에는 타인의 수용-거부, 사교성-비 사교성, 우호적-비우호적, 동정적-비 동정적 등의 영역, 표현적 성향에는 경쟁적-비경쟁적, 공격적-비공격적, 자의식적-유유부단, 과시적-자기말살적 영역들로 구성된다.

국내의 대인관계 성향 연구에서는 김재은(1973)이 Leary의 대인관계 행동모형을 기초로 ‘대인관계진단척도’ 연구와 이재창(1981)의 ‘대인관계검사’ 척도연구가 있으나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안범희(1985)가 제작한 대인관계 성향 척도는 Leary의 대인행동 모형과 Krech 등의 기본적 대인반응 특성 등을 종합하여 재정리하여 대인관계 성향의 각 차원을 세분화시킨 것으로 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다. 이후의 국내연구는 대부분 안범희의 척도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은 동정-수용, 사교-우호적, 독립-책임 영역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반항-불신 영역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고(이문행 1994), 반항-불신 영역점수가 높은 것은 대인관계 적절성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지적되었다(안범희 1985).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문희(1991)는 중고등학생 중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이고 반항적-불신적, 사교-우호적인 성향이 높고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동정적-의존적이라고 하였다. 한편 다른 연구(주소영 1995; 한광희 1986)에서도 남자고등학생이 여자고등학생에 비해 반항적-불신적, 경쟁-공격적 성향이 높다고 하였다. 대학생들 연구한 결과에서는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 사교-우호적, 동정-수용적 성향을 더 많이 보이고(안범희 1985; 이문행 1994; 한광희 1986),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과시-도취적 성향이 높다고 보고된다(이문행 1994). 한편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성향에서

성별 차이가 없다는 결과(심혜영 1992)도 있다.

가정경제 수준별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는 경제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과시-도취적인 성향이 높고(이문행 1994), 가정경제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경쟁-공격적인 성향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방문희 1986). 한편 가정경제수준이 대인관계 성향과 관련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심혜영 1992).

이외에 부모의 학력과 청소년의 출생순위에 따른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를 단편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으나 일관성 있는 결과를 찾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과 관련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성별, 가정경제수준 등이 보고되나 일관성 있는 결과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포함한다. 동시에 선행연구는 없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 인문계인가, 실업계인가에 따라 대인관계 성향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학생의 학교계열을 변인에 포함하였다.

3. 가족기능성과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을 이해하고 이들의 대인관계문제 해결과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일차적인 환경인 가족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Filsinger과 Lamke(1983)도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일관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고등학생기에 형성된 사회적응양식이 청년후기를 통하여 안정되고 이후 성인기의 적응양식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체계론적 접근의 순환모델을 적용하여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기능성과 이들의 대인관계 성향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고등학생의 가족기능성과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본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발견할 수 없고, 아동과 대학생 대상의 연구가 약간 있을 뿐이다. 아동대상의 연구(신귀순 2001)와 대학생 대상연구(이문행 1994) 결과에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을 때 아동이나 대학생은 독립-책임적,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과시-도취적 성향이 높고, 반항-불신적 성향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 성향과 유사한 개념인 대인문제성향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최희량(1998)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을수록 중고교생의 대인관계성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응집성과 적응력이 낮을수록 냉담, 보복, 수동-공격적인 대인문제 성향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수원, 성남, 화성, 오산, 안양, 이천시 소재의 4개 인문계 고등학교와 4개 실업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3년 6월9일부터 27일에 걸쳐 교사를 통하여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400부를 배부하여 393부를 회수하고 이중 불성실한 답변을 한 질문지 33부를 제외한 360부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 도구

1) 가족기능성 척도

가족 기능성은 Olson 등(1985)이 개발한 FACES III을 변안한 김수연(1997)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가족응집성(정서적 유대감, 가족경계, 연합, 시간, 공간, 의사결정, 흥미와 오락) 8문항과 가족적응력(주장, 통제, 훈육, 협상, 역할, 규칙) 6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언제나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가족응집성이 .90, 가족적응력이 .85이었다. 평균값 산출은 가족응집성, 가족적응력 각각의 총점을 문항 수로 나눈 각각의 점수를 산출하였고, 점수범위는 1점에서 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2) 대인관계 성향 척도

안범희(1985)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척도는 Table 2에서와 같이 역할, 사회, 표현의 3개 하위영역이 있고, 각 영역별로 2-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즉역할영역에는 지배-우월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s	Group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84	51.1
	Female	176	48.9
School	Liberal Arts	186	51.7
Department	Vocational	174	48.3
Family Economy Level	Low	19	5.3
	Middle-Low	65	18.1
	Middle	195	54.2
	High	79	21.9
	Very High	2	.6

독립-책임감의 2개 하위요인이 있고, 사회영역에는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의 2개 하위요인이 있으며, 표현영역에는 경쟁적-공격적, 과시-자기도취적, 반항적-불신적의 3개 하위요인이 있다. 각 하위요인은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7개 하위요인 총 84문항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은 언제나 그렇지 않다(1점)에서 언제나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7개 하위요인 각각의 점수는 12점에서 6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대인관계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 a)는 .75 ~ .88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성향 7개 하위요인의 내용과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배-우월성 성향은 토론할 때마다 언쟁을 벌이기를 잘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를 좋아하거나 과장되게 말하기도 하며, 여러 사람을 대표하거나 어떤 모임에서든 자신의 주장을 이루려고 하거나 남에게서 잘난척 한다는 말을 듣는 것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솔선적이고 복종을 요구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독립적-책임감 성향은 자기판단적이고 독자적, 자립적, 솔선수범적, 과업지향적이고, 철저한 책임의식, 자기권리 주장적인 면을 의미한다. 동정-수용적 성향은 남에게 관용적이고 허용적이며, 약자에게 동정심이 많고 도와주기를 잘하며, 타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남에게 성심성의껏 대하고 포용력이 있는 것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사교적-우호적 성향은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잘하고, 다른 사람과 우호적이고 친밀하게 지내

Table 2. Reli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scale

Dimension	Disposition	Cronbach' a
Role	Dominant - Ascendant	.75
	Independent - Responsible	.75
Sociometric	Sympathetic - Acceptable	.81
	Sociable - Friendly	.83
Expressive	Competitive - Aggressive	.88
	Ostentatious - Self-Absorption	.86
	Rebellious - Distrustful	.77

기를 좋아하고 개방적이며, 낙천적이고 활동적이며 온화하고 친절하며, 협조적인 것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경쟁적-공격적 성향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몹시 속상해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며, 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고 비판적이며, 논쟁적인 것 등이 문항에 포함된다. 과시-자기도취 성향은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며, 자신의 용모에 자신감을 지니고, 남에게 자신에 대한 자랑을 잘하며 자기도취를 잘하고, 과장적이고 즉흥적이며, 흥분을 잘하고 지나치게 낙천적인 것 등이 문항에 포함된다. 반항적-불신적 성향은 누가 도와주거나 충고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친구가 지시하는 일을 따르지 않으며, 남의 말을 믿기보다 경계를 한다 등이 문항에 포함한다. 이 성향은 자기고집, 자만, 비타협적, 의심, 왜곡적 의도, 독립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3) 기타 척도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학교 계열별,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을 질문하였다.

3. 자료처리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족 기능성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력별로, 대인관계 성향은 7개 하위요인별로 평균값,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인구학적 변인(성별, 학교계열별, 주관적 가정경제수준)별 가족기능성과 대인관계 성향 각각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검증이나 일원변량분석(ANOVA)을 사용하였으며 일원변량 분석 결과에 대한 사후검증은 Duncan 검증방식으로 하였다. 이때 주관적 가정경제수준 변인은 못사는 편과 약간 못사는 편을 합하여 '하층'으로, 보통은 '중층'으로, 부유한 편과 아주 부유한 편을 합하여 '상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족기능성에 따른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력 점수 각각을 '하', '중하', '중상', '상'의 네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고 그 기준은 최소값~(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평균, 평균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최대값 이었다. 그리고 각 집단별 대인관계성향 7개요인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Duncan검증방식을 사용하였다. 통계 처리는 SPSS 10.0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가족기능성 경향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력의 일반적 경향을 알

Table 3. Tendency of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Family Functioning	Mean	SD
Family Cohesion	3.36	.58
Family Adaptability	3.47	.57

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가족응집성의 평균점수는 3.36, 표준편차가 .58 이고, 가족적응력의 평균은 3.47, 표준편차는 .57 이었다. 이 결과로서 고등학생들이 지각한 가족의 기능성은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력의 인구학적 변인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가정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력이 높았다($p < .001$). 사후검증결과 가족응집성은 하층, 중층이 상층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가족적응력은 하층과 중,상층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안양희(1988)의 결과와 전반적으로 일치되는 것이나 이문행(1994)의 가족응집성만 경제수준별 차이가 있다는 보고와는 상이한 것이다. 이는 연구대상이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다르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학생의 학교계열별 차이는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에 비해 $p < .05$ 수준에서 가족응집성과

Table 4. The degree of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by demographic variables

Variable	Group(N)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Mean	SD	Mean	SD
Gender	Male(184)	3.34	.54	3.48	.58
	Female(176)	3.38	.60	3.45	.59
t value		-.66		.48	
School Department	Liberal Arts(186)	3.41	.61	3.51	.60
	Vocational(174)	3.31	.52	3.39	.56
t value		1.65*		1.96*	
Family Economy Level	Low(84)	3.13a	.63	3.18a	.60
	Middle(195)	3.34a	.53	3.46b	.55
	High(81)	3.59b	.65	3.57b	.62
F value		6.69***		5.26***	

* $p < .05$ *** $p < .001$

적응력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참고하기 위한 분석결과에서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가족의 심리적 도구적 지지와 경제적인 면에서 더 좋은 형편인 것($p < .05$)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선행연구가 전무하여 구체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성별에 따른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력의 각각의 차이는 없었는데 이는 아들인가 딸인가에 따라 가족의 기능성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2. 대인관계 성향 경향

대인관계 성향 하위 요인들은 지배-우월, 독립-책임, 동정-수용, 사교-우호, 경쟁-공격, 과시-자기도취, 반항-불신의 총 7개 성향으로 명명되어 분석되었다. 7가지 대인관계 성향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사교-우호 성향과 동정-수용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고, 반항-불신 성향이나 지배-우월 성향

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이문행 1994)와 유사한 것이다.

Table 5. Tendency of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Disposition	Mean	SD
Dominant-Ascendant	32.51	4.95
Independent-Responsible	36.05	4.76
Sympathetic-Acceptable	40.01	5.35
Sociable-Friendly	40.86	5.89
Competitive-Aggressive	35.77	6.79
Ostentatious-Self-Absorption	35.16	6.20
Rebellious-Distrustful	32.50	4.97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대인관계 성향은 Table 6에서 보는 대로 지배-우월 성향과 동정-수용, 경쟁-공격, 과시-자기도취 성향이였다. 지배-우월 성향과 경쟁-공격성향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고, 동정-수용성향과 과시-도취 성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중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배-우월성향과 경쟁-공격성향이 높은 것은 선

Table 6. The degree of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by gender

Disposition	Male		Female		t value
	Mean	SD	Mean	SD	
Dominant-Ascendant	33.15	5.23	31.86	4.44	2.52*
Independent-Responsible	36.32	4.84	35.74	4.69	1.15
Sympathetic-Acceptable	39.26	5.24	40.72	5.55	-2.56*
Sociable-Friendly	40.71	5.67	40.99	6.31	-.30
Competitive-Aggressive	36.43	6.64	34.52	6.80	2.69**
Ostentatious-Self-Absorption	34.40	6.16	36.23	6.18	-2.81**
Rebellious-Distrustful	32.97	4.89	32.31	4.88	1.28

* $p < .05$ ** $p < .01$

Table 7. The degree of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by school department

Disposition	Liberal Arts		Vocational		t value
	Mean	SD	Mean	SD	
Dominant-Ascendant	32.88	5.21	32.16	4.65	1.38
Independent-Responsible	36.49	4.75	35.63	4.77	1.71
Sympathetic-Acceptable	39.99	5.50	40.01	5.26	-.03
Sociable-Friendly	40.94	6.14	40.72	5.82	.35
Competitive-Aggressive	36.63	6.82	34.87	6.70	2.46*
Ostentatious-Self-Absorption	36.02	6.20	33.86	6.17	3.30**
Rebellious-Distrustful	31.79	4.91	33.33	4.85	-2.98**

* $p < .05$ ** $p < .01$

Table 8. The degree of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by family economy level

Disposition \ Family Economy Level	Low (84)	Middle (195)	High (81)	F value
Dominant-Ascendant	31.23	32.55	33.06	1.38
Independent-Responsible	35.54	35.82	36.93	1.21
Sympathetic-Acceptable	40.08	39.72	40.65	.63
Sociable-Friendly	40.78	40.70	41.23	.21
Competitive-Aggressive	34.11 ^a	35.40 ^{ab}	37.78 ^b	3.71 [*]
Ostentatious-Self-Absorption	32.55 ^a	35.07 ^b	36.81 ^b	4.53 [*]
Rebellious-Distrustful	33.62	32.31	32.49	.90

* $p < .05$

행연구(방문희 1991; 주소영 1995)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더 동정-수용성향과 사교-우호성향이 높다는 선행연구(안범희 1985; 이문행 1994)결과와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이는 역시 연구대상이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차이 나는 것과 관련될 수 있으나 더 구체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연구결과가 축적되어야겠다.

학교계열별 대인관계성향의 경우 표7에서 보는 대로 인문계 학생들은 실업계 학생에 비해 경쟁-공격, 과시-자기도취 성향이 더 높은 반면에 실업계 학생들은 반항-불신 성향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 결과에 대한 신중하고도 탐색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먼저 인문계 학생들은 실업계에 비해 학교분위기나 사회의 통념에서 공부와 대학진학이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평가를 받고 있음에 따라 더 적극적이고 경쟁추구적인 자세와 과시적 자기도취 성향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편 실업계학생들이 더 반항-불신 성향을 보이는 것은 이들의 가족 응집성과 적응력이 인문계학생에 비해 낮은 앞에서의 결과와 연관시켜 볼 때 실업계학생들의 경우 가족 기능성이 낮아 가족생활만족도가 저하되었기 때문일 수 있고, 동시에 실업계학생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편견과 저하된 자존감이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는 Table 8에서 보는 대로 경쟁-공격 성향과 과시-자기도취 성향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사후검증 결과, 가정경제수준이 하층인 집단보다 중층이나 상층 집단에서 경쟁-공격 성향과 과시-자기도취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중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과시-자기도취 성향이 높은 것은 선행연구(이문행 1994)와 일치되는 것이다. 이에 관해 현대 사회가 감각추구의 시대인 것과 관련지어 해석해볼 수 있다. 즉 잘 살수록 가시적으로 남에게 자신의 부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을 많이 갖게 되고,

Table 9. The degree of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by family cohesion

Disposition \ Family Cohesion	Low (59)	Middle-Low (117)	Middle-High (126)	High (58)	F value
Dominant-Ascendant	32.60	32.83	32.27	32.32	.43
Independent-Responsible	35.18	35.97	36.40	37.08	1.52
Sympathetic-Acceptable	38.13 ^a	38.95 ^a	40.40 ^a	42.97 ^b	6.69 ^{***}
Sociable-Friendly	39.34 ^a	39.63 ^a	41.09 ^a	44.36 ^b	6.58 ^{***}
Competitive-Aggressive	35.48	36.94	35.66	33.90	1.69
Ostentatious-Self-Absorption	34.74	35.45	35.11	35.07	.32
Rebellious-Distrustful	35.42 ^c	32.90 ^b	31.87 ^b	30.01 ^a	8.84 ^{***}

*** $p < .001$

Table 10. The degree of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by family adaptability

Disposition	Family Adaptability Low (42)	Middle-Low (72)	Middle-High (87)	High (35)	F value
Dominant-Ascendant	31.25	32.30	32.89	33.81	1.88
Independent-Responsible	33.58 ^a	35.33 ^{ab}	37.00 ^{bc}	38.20 ^c	8.82 ^{***}
Sympathetic-Acceptable	37.89 ^a	38.87 ^{ab}	40.32 ^{bc}	43.39 ^c	8.36 ^{***}
Sociable-Friendly	38.77 ^a	39.63 ^{ab}	41.49 ^{bc}	44.62 ^c	6.97 ^{***}
Competitive-Aggressive	33.76	35.72	36.38	36.54	1.43
Ostentatious - Self-Absorption	33.96	34.52	36.31	35.43	1.38
Rebellious-Distrustful	33.78	32.89	31.81	32.07	1.92

*** $p < .001$

또 자신감도 증진되는 현상이 이 과시-도취 성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결과는 한 연구(방문희, 1986)에서 가정경제 수준이 낮은 집단이 경쟁-공격적인 성향이 많다는 보고와 상반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3. 가족 기능성과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가족 기능성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의 수준 각각을 4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준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른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는 Table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가족 응집성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인관계 성향은 동정-수용 성향, 사교-우호 성향, 그리고 반항-불신 성향이었다($p < .001$). 집단별 사후검증을 한 결과 응집성 수준이 ‘하, 중하, 중상’인 집단보다 ‘상’ 집단에서 동정-수용 성향과 사교-우호 성향이 더 높았다. 한편, 반항-불신 성향은 응집성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응집성이 중간정도인 집단이 높았으며, 응집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반항-불신 성향이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신귀순 2001; 이문행 1994)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로써 가족응집성 정도가 고등학생의 동정-수용, 사교-우호 등의 바람직한 성향과 관련되고, 또한 고등학생의 반항-불신 성향과도 관련됨을

알 수 있고, 고교생의 문제예방을 위해서는 가족 응집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받는다. 다만 본 연구결과는 독립-책임 성향도 응집성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신귀순 2001; 이문행 1994)결과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대상과 본 연구대상이 연령집단에서 상이한 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가족의 적응력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인관계 성향은 Table 10에서 보는 대로 독립-책임 성향, 동정-수용 성향, 그리고 사교-우호 성향이었다($p < .001$). 사후검증 결과 이 세 가지 성향은 모두 가족적응력이 높은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가족적응력이 중간인 집단에서 중간수준이었으며, 가족적응력이 낮은 집단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이문행 1994)에서 가족적응력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독립-책임적,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이 높고 반항-불신의 성향이 낮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데, 이 차이는 역시 본 연구대상이 고등학생인데 비해 선행연구는 대학생인 것과 연관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 결과들을 통하여 고등학생이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대인관계 성향 중 동정-수용 성향과 사교-우호적 성향이 유의하게 크게 발달하는데 반해 특히 가족응집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반항하고 불신감이 많을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결과들은 청소년이 가족의 기능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대인관계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가족의 기능성 수

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대인문제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결과(이문행 1994; 최희량 1998)와도 맥락이 일치하는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직접적인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탐색적 특성을 지닌다는 제한점을 갖고 연구결과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한다.

먼저 학교계열별 차이에서 실업계 학생들은 인문계 학생에 비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을 낮게 지각하고 반항-불신성향이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이 결과는 인문계 학생에 비해 실업계 학생이 처해있는 열악한 가정환경과, 대학진학 위주의 사회분위기에 따른 이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평가와 편견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 저하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생이나 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아울러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과,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와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인문계 학생의 경우에 실업계 학생에 비해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을 높게 지각하고, 대인관계 성향 중 경쟁-공격성향과 과시-자기도취성향이 높은 결과는 이들이 실업계 학생에 비해 가정환경적으로 가족응집과 적응에 필요한 자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직접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의 열풍, 몸짱 등으로 대표되는 외도지상주의의 감각문화의 중심에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에 비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을 높게 지각하고 대인관계 성향 중 경쟁-공격 성향과 과시-자기도취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제수준이 높은 가족의 학생과 부모들이 자존감과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 있고,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자원과 기술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반

영하는 것이며, 아울러 우리사회가 입시경쟁이 치열하고 감각적 문화를 추구하는 점들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배하고 우월해 지려는 성향이 강한 반면에 여학생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기도취적인 성향이 강한 결과는 남성 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 학습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다른 결과를 보고 하는 연구도 있어 구체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요한다.

또한 가족응집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동정심이 많고 타인을 수용하며 대인관계에서 사교적이고 우호적이었으나 가족응집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반항과 불신감이 많다는 결과는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가 높고 따뜻하고 친밀한 분위기의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고등학생의 정서안정과 사회적응에 중요하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가족적응력을 높게 지각하는 고등학생이 독립심과 책임감이 많고 동정적이며 타인을 수용하고 대인관계에서 사교적이고 우호적이라는 결과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이 잘 대처하며 자신을 개발하고 변화해 가는 것이 고등학생의 사회적응에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력을 낮게 지각하는 고등학생들이 반항-불신감 성향이 많다는 결과는 고등학생의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과 문제해방을 위해서 고등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실업계학생들과 가정경제형편이 좋지않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건강한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는 가족의 전제모습을 파악할 목적으로 선행연구가 미비된 상태에서 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의 기능성과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바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은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성향과 관련성이 있음이 입증되었고, 동시에 학교계열별, 가정경제수준별로

가족기능성과 대인관계성향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실업계 학생들과 가정경제수준이 낮은 학생들, 그리고 가족의 기능성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를 위한 가족기능성 강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데 또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를 통해 Olson 등의 순환모델의 직선적 가설이 지지되었음을 발견하였다는 점도 부언하고 싶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표집의 규모를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하고 중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조사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자녀와 부모를 함께 연구하여 가족의 기능성과 대인관계 성향의 관계를 더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약한 가정환경에 있는 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과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수연(1997). 가족사정 척도개발과 타당도 검증.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김주연(1997). 가족기능에 따른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박기호(1998). 고등학생의 분노표현 방식과 대인관계성향. 한국의국어대 석사학위논문.
- 방문희(199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송여옥(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 송정아·최규련(2002).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하우.
- 신귀순(2001). 가족의 기능에 따른 아동의 자기역량 지각과 대인관계 성향.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심혜영(1992). 고교생의 대인관계성향과 부모자녀간 대화개방도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 안범희(1985).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안양희(1988). 고등학생 남학생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Circumplex모형을 이용하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이문행(1994). 가족기능성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전귀연·최보가(1995a). 가족응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1), 83-98.
- 전귀연·최보가(1995b). 가족 적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2), 73-88.
- 주소영(1995). 고교생이 지각한 부·자녀간 애정적 유대와 대인관계성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1988). 가족치료에 관한 이론적 고찰. 수원대학교 논문집 6:305-318.
- _____ (1998).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복 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120-142.
- _____ (1999).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모 및 자녀 요인,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 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자녀의 우울정도와 관련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2), 99-111.
- 최연실(1996). 가족적응력, 응집성평가척도(FACES)에 관한 연구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31-146.
- 최희량(1998).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대인문제성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 최희진·유영주(2004).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도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가족과 문화 16(1), 63-107.
- 한광희(1986).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황경옥(2002).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 Beavers WR(1977). Psychotherapy and growth : Family systems perspective. N.Y.: Brunner/Mazel.
- Beavers WR, Voeller MN(1983). Family models: Comparing and cons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 model. Family Process 22. 85-98.
- Filsinger EE, Lamke LK(1983). The lineage transmission of interpersonal compet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 : 75-80.
- Krech D(1962). Individual in society. N.Y.: Mcgraw Hill.
- Lavee Y, Olson DH(1991). Family types and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786-798.
- Leary T(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Y.: The Ronald Press Co.
- Olson DH, DeFrain J(2003). Marriage and families (4th). McGraw Hill.
- Olson DH, Porter J(1982).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II. In E.E.Filsinger(Ed).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Sage Publication.
- Olson DH, Porter J, Lavee Y(1985). FACES III.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Paul. Minnesota.

Olson DH, Russel CS, Sprenkle DH(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V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Olson DH, Sprenkle DH, Russel CS(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 Family Process 18, 3-23.

Sullivan H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Y.: W.W. Horton.